

배우 박해일, “이순신 역 숨 멈춘 것 같은 압박 느껴”

영화 ‘한산:용의 출현’서 젊은 이순신 역
“대사 적어 표정·숨소리로 감정 전달해”

“전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숨이 멈췄어
요.”

2014년 7월 ‘명량’ 개봉을 앞둔 배우 최민식은 이순신 장군 연기에 대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다”고 했다. 성웅(聖雄)으로 불리는 인물이 돼 카메라 앞에 서는 게 그만큼 중압감이 큰 일이었다는 얘기였다. 지난 21일 만난 배우 박해일(45)에게 최민식이 했던 말을 전했다. 그는 ‘명량’을 만든 김한민 감독이 8년만에 내놓은 새 이순신 영화 ‘한산:용의 출현’에서 이순신을 연기했다. 박해일은 “난 숨이 막힐 것 같은 게 아니라 숨이 멈췄다”고 했다. 좀처럼 과장된 표현 같은 걸 쓰지 않는 그이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역할을 맡아 연기할 때도 압박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아는 위인을 연기한다는 것은 평소 때보다 열배, 천배 부담스러웠습니다.”

영화 데뷔 21년차.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베테랑 중 베테랑이지만, 그는 “연기하는 게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서 있기조차 힘들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겠더라”는 말도 했다.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한산도 해전을 그린 이 작품에서 이순신은 관육선 가장 높은 곳에 미동도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

된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감정 변화가 거의 없다.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관육선 꼭대기에 혼자 서 있으면 모든 게 잘 보입니다. 전투 지휘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투 좌우에서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가 저만 보고 있어요. 그 부담은 말할 수 없어요.”

박해일은 부담과 압박을 얘기했지만, 그는 ‘한산:용의 출현’의 이순신을 ‘명량’의 이순신과 판이하게 다른 인물로 재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명량’의 이순신이 뜨겁다면, ‘한산:용의 출현’의 이순신은 차갑다. ‘명량’의 이순신이 고독하다면, ‘한산:용의 출현’의 이순신은 동료에 의지한다. 이 또 다른 이순신 캐릭터는 김한민 감독이 제시한 비전을 박해일이 완벽에 가깝게 체화해 만들어졌다. 박해일은 그런 이순신을 “무인하면서 붓을 든 모습도 잘 어울리는 군자와도 같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일의 이순신은 밀려들어오는 왜군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끊임 없이 고민하는 장수다. 말수가 많지 않고 여간해서는 감정 표현도 하지 않는 매우 정적인 인물이다. 그러다보니 ‘한산:용의 출현’에서 박해일의 대사는 많지 않다. 전투가 절정으로 향해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박

해일의 이순신은 침착하기만 하다. 그러다가 한 마디 내뱉는다. “발포하라.” 그렇게 전투는 조선 수군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 된다.

“배우가 관객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대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저는 대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사가 아니라 제 눈빛에 감정을 담아서 관객에게 실어보내야 했습니다. 호흡을 실어보내야 했고, 가만히 서있는 그 모습을 실어보내야 했어요. 이런 연기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얼굴 하나도 드라마의 문맥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이순신의 기운으로 계속해서 뿜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촬영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도 이순신의 기운을 몸 안에 계속해서 간직하려고 했다. 박해일은 숙소로 돌아오면 평소와 다르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시나리오를 보고, 커피를 마셨다고 말하며 웃었다.

전작인 ‘명량’은 당시 1761만명을 불러모으며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후속작에 출연하는 배우로서 흥행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해일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스포이에 관해서 생각하지만, 촬영 당시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맡은 역할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흥행 부담까지 고려할 만한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는 한국 영화사상 유례 없는 51분 간 이어지는 해상 전투 장면이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고 촬영했



다. 게다가 물 한 방울 쓰지 않고 그 모든 장면을 만들어냈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장에 해전 촬영을 위한 세트장을 짓고 온통 그린 매트를 두른 뒤 실물 크기 배 모형을 올렸다. 박해일은 어떤 배경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바다 위에서 전투를 하는 것처럼 연기해야 했다.

“연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무

대 계팅만 해놓고 관객을 맞이하는 그런 연극인 거죠. 내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일으켜가면서 주변의 낮은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며 연기했습니다.” 그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다. “앞으로 배우들은 더 자주 이런 상황에서 연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연기를 최대한 깊고 넓게 학습하게 된 장이었다”고 말했다.

뇌과학자 정용화·형사 차태현의 코믹수사극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



밴드 ‘씨엔블루’ 정용화와 배우 차태현이 뇌과학 코믹 수사극에서 만난다.

KBS 2TV 드라마 ‘두뇌공조’는 서로 못 죽여 안달 난 뇌신경과학자 ‘신하루’(정용화)와 형

사 ‘금명세’(차태현)가 희귀 뇌질환에 얽힌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다. 하루는 3대째 의사 집안에 물려받은 재산까지 상당한 부자다. 법, 돈, 여자, 외로움, 죽음 등에 두려움이 없고 소신대로 행동한다. 명세는 마초 분위기와 거친 말투 등 겉모습은 생계형 비리 형사처럼 보이지만, 착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곽선영은 범죄면수사관 ‘설소정’을 맡는다.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 반응에 민감하고 부하에게 엄무지시를 하는 데도 심장이 쿵방거린다. 소심하고 시키면 다 하지만 성격이 180도 바뀌는 사건을 겪는다. 예지원은 명세의 전 부인 ‘김모란’으로 분한다. 계속 남자를 바꾸고 양다리를 걸치는 등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가진 소유자다. 이혼 후에도 명세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한다.

‘오케이 광자매’(2021) 이진서 PD가 연출한다. 박경선 작가가 집필한다.

나쁜놈 계속 잡자...마동석·이준혁 ‘범죄도시3’ 촬영 시작

마석도 광수대 합류 야쿠자 범죄 해결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최고 흥행작인 ‘범죄도시2’(1268만명)의 후속작 ‘범죄도시3’가 촬영진을 완성하고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는 25일 “‘범죄도시3’

가 마동석·이준혁·이범수·김민재·전석호·고규필,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 드 출연진을 완성하고 지난 20일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3’는 ‘마석도’(마동석) 형사가 광역수사대에 합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다. 윤계상·손석구 뒤를 잇는 ‘범죄도시3’ 시리즈의 악당 계보는 배우 이준혁이 이어받아 ‘주성철’을 연기한다. 이범수는 광역수사대 반장 ‘장태수’를, 김민재는 마석도의 오른팔 ‘김만재’를 맡았다. 또 우연한 계기로 마석도의 조력자가 되는 ‘김양호’는 전석호가, ‘조룡이’는 고규필이 연기한다.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는 야쿠자 ‘리키’를 맡는다. 이번 작품은 마석도가 야쿠자와 얽힌 범죄를 해결하는 모습을 담는다.

연출은 ‘범죄도시2’를 1000만 영화로 이끈 이상용 감독이 다시 한 번 맡았다. 이 감독은 “‘범죄도시3’로 다시 인사드리게 돼 기쁘고 영광”이라며 “마동석 배우를 필두로 새롭게 합류한 이준혁, 아오키 무네타카 등과 작업이 많이 기대된다. 배우·스타들과 함께 진심을 다해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마동석은 “많은 분이 기대하는만큼 재미있는 영화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범죄도시3’ 개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브레이브걸스, 美 첫 단독 콘서트 성료

그룹 ‘브레이브걸스(Brave Girls)’가 첫 단독 미국 투어를 성료했다.

25일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연을 마지막으로 ‘브레이브걸스 퍼스트 유에스 투어(BRAVE GIRLS 1st U.S. TOUR)’를 마무리했다.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9일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뉴욕, 마이애미, 애틀랜타, 시카고, 델러스, 덴버, 샌프란시스코, 이번 LA까지 총 9개 도시를 방문했다.

브레이브걸스는 히트곡 ‘롤린(Rollin)’ ‘운전만해(We Ride)’ ‘치맛바람(Chi Mat Ba Ram)’ 등을 불렀다. 브레이브걸스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공연장에 있는 관객들의 열기를 끌어올렸다고 브레이브는 전했다.

특히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코리아 가요제(KOREA GAYOJE)’ 무대에서는 5000여명의 관객들이 ‘롤린’을 떼창하는 등 멤버들을 향한 무한 애정을 보여줬다.



또한 미국 방송국 NBC 시카고에서는 브레이브걸스의 첫 단독 미국 투어를 조명하고 직접 인터뷰했다. 이 방송사는 브레이브걸스를 “최고의 컴백 스토리로 K팝 역사를 만든 한국의 걸그룹”이라고 소개했다.

브레이브걸스는 브레이브를 통해 “이번 미국 투어를 통해 먼 곳에서도 브레이브걸스를 응원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받은 사랑에 보답하겠다”면서 “뜨겁게 응원해 준 팬분들 덕분에 9번의 투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값지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아, 5세 연하 포레스텔라 고우림과 10월 결혼

전 피겨스케이팅 스타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연아(32)가 5세 연하인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겸 펌퍼라 가수 고우림(27)과 결혼한다.

25일 김연아 소속사 올댓스포츠와 고우림 소속사 비트인터랙티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는 10월 하순 서울 모처에서 웨딩마치를 올린다.

양 측은 “결혼은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예식 장소를 알리지 않는 점, 많은 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양 측에 따르면 김연아와 고우림은 지난 2018년 올댓스케이팅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났다. 당시 포레스텔라가 초청돼 공연했다. 이후 두 사람은 3년여 간 교제했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

‘피겨 요정’ ‘국민 여동생’으로 통하는 김연아는 스포츠계 최고 스타 출신이다.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다.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2014 소치 동계

2018년 올댓스케이팅 아이스쇼서 처음 만나...3년여간 교제



올림픽에선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은메달을 차지했다. 같은 해 ‘올댓스케이팅 아이스쇼’를 끝으로 선수 생활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에도 동계 올림픽 관련 여러 활동을 해왔다. 2018년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나섰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고우림은

JTBC 남성 4중창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2’(2017)에서 우승한 포레스텔라 멤버다. 목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 낭만적인 감성이 특징이다. 고우림은 결혼 후에도 포레스텔라 멤버이자 성악가,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